

연재 I

+  
문화속 수의학(6)



천 명 선  
(주)미래세움  
jdchun@snu.ac.kr

## 문화속 수의학(6) 잉카의 큰 고양이, 펠리노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입구 계단에는 마추픽추(Machu Picchu)가 옮겨와 있다. 얼마 전 큰 홍수로 인해 관광객들이 고립되었던 바로 그 페루의 잉카 유적지이다. 계단에 붙여진 사진에 지나지 않지만 한 계단씩 오를 때 약간이나마 이 고산 도시 유적에 가까이 가는 흥분감을 맛볼 수 있다. 올해 3월 말까지 열리는 특별기획전시에는 고대 안데스 지역의 고고학 유물들이 전시된다. 특히 동물을 형상화한 많은 유적들이 있어 우리 수의사들에게도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적지 않다.

### 안데스 문명의 동물들

모든 문화의 시작이 그렇듯 안데스 지역의 신화에도 동물들이 등장한다. 아시아에서 건너간 클로비스(Pre Clovis)인 들이 북아메리카를 거쳐 남하하여 자리잡은 것이 약 기원전 1만 2천년이였다. 이곳에서도 다른 문명권에서처럼 기원전 6000년 경부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안데스 지역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잉카 제국이전에도 많은 왕국과 이들의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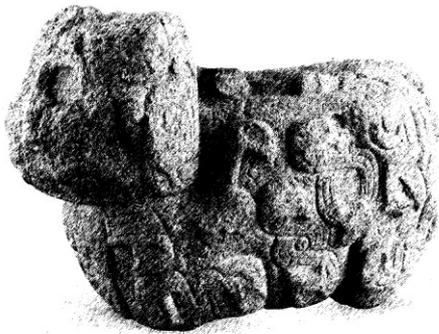


그림 1. 펠리노 신 석상(차빈, 기원전 1000-400)

사람들이 모이고 종교와 사회제도가 발전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고대 문화에서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페루에서 가장 오래된 카랄(caral)유적은 특히 제사에 관련된 유적인데 당시에 발견된 동물뼈 악기들은 제례용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sup>1</sup> 그림과 자료는 '태양의 아들, 잉카' 전시도록(국립중앙박물관, 2009)을 참고하였습니다.

## 연재 I

+

문화속 수의학(6)  
잉카의 큰 고양이, 펠리노

전시회를 관람하던 한 똑똑한 꼬마 녀석이 “뭐야, 잉카는 펠리노만 알면 되는거잖아!”라고 단언하는 것을 들었다.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많은 동물의 형상이 이용되었지만 특히 펠리노(felio)상은 특징적이다. 후에 자료를 찾아보니 고대 안데스 인들이 생각한 우주(하늘)의 상징인 독수리(새), 땅의 펠리노, 죽음의 지하세계의 뱀과 거미가 신격화 되었다고 하지만 말이다. 고양이과 동물인 재규어 등 맹수에서 차용해온 이미지가겠지만 펠리노는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 기원전 1000년경 안데스 문명의 대표 주자인 차빈(Chavin) 문화유적에서부터 펠리노는 이미 중요한 동물신이다. 시기가 오래된 펠리노신은 희화된 고양이처럼 보인다(그림 1). 파코팜파 신전 유적에서 발굴된 펠리노 신 모양의 절구에서는 이를 드러낸 펠리노도 별로 무시무시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원후 100년경부터 600여 년 간 이 지역을 장악했던 모체(Moche) 문화의 펠리노신인 아이아파엑(Ai-Apaec)부터는 그 자체로도 매우 험상궂다. 날카로운 이와 부릅뜬 눈, 날카로운 발톱이 무서운 반인 반펠리노의 신상은 두려움을 준다. 또한 이 시대의 유물에 나타난 동물형 펠리노는 하나같이 무섭게 으르렁대고 있다. 모체

문화 지역의 토기는 다양한 동물들을 표현하고 있어 보는 즐거움을 더해 준다. 사악해 보이는 여우라거나 전사의 무기를 갖춘 콘도르, 등에 무언가를 지고 있는 개, 이구아나, 어둠과 지혜를 상징하는 올빼미, 둥그런 부리를 가진 오리까지 대개는 신격화된 동물들로 당시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림 2).



그림 2. 다양한 동물 토기들

중세를 지나 잉카제국 시대로 오면 라마상이 눈에 띈다. 안데스 지역에서 여러모로 쓸모가 많았을 가축인 라마는 신격화 된다고 보다는 오히려 귀중한 재산으로서 예술품의 소재가 되었을 듯싶지만, 이 동물은 황제의 재산으로 신성시 되어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의식에 등장했다고 한다.



### 피를 부르는 제례의식

농업이 중심인 사회에서 자연현상은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다.

따라서 자연 재해는 흔히 신들의 분노로 여겨진다. 많은 유물에 표현된 희생 의례는 이런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전사들은 인신 공양을 위한 희생 제물을 찾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잡혀온 포로들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신에게 바쳐졌다. 고대 안데스 인들은 인간의 피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겼는데,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용맹한 전사의 피는 가치 있는 제물이었다. 알몸으로 포박된 포로의 모습은 이들의 유물에 잘 표현되어 있다.

제사장은 투미(Tumi)라는 반달모양의 칼로 제물의 목을 그어 희생시킨 후 그 피를 잔에 받았다. 투미는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식물로도 곧잘 쓰인다. 모체 지역의 통치자였던 시판왕의 무덤에서는 펠리노신으로 장식된 화려한 장신구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펠리노신의 위엄과 두려움을 빌린 왕은 백성들에게 인자하기 보다는 잔인한 존재였을 것이다. 후에 이런 잔인한 희생 의례 때문에 외세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황금의 제국이라 불린 잉카가 더욱 빨리 멸망한 이유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그림 3).

### 질병, 죽음, 미라

사실 이 전시회를 찾은 가장 큰 목적은 동물 미라를 보기 위해서였다. 고대 안데스 인들은 이집트보다도 먼저 미라를 만들었다고 한다. 건조한 이 지역의 특성상 자연상태로 두어도 미라가 되기 쉬웠을 테지만 내장을 제거하고 빈 속에는 동물털을 채워 넣어 부패를 방지하기도 했다. 이집트의 미라와는 다르게 이들의 미라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잉카 시대까지 지속된 미라 풍습은 황제에게 있어서는 더욱 특별했다. 황제의 미라



그림 3. 투미로 제물의 목을 베는 펠리노신



그림 4. 개의 미라(치리바야, 기원후 900-1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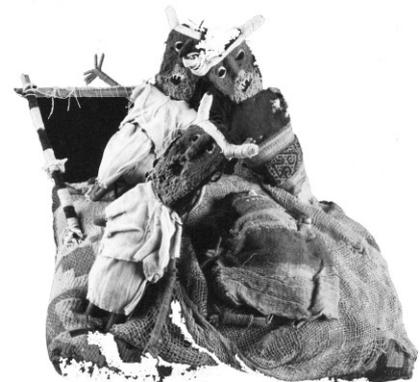


그림 5. 환자를 치료하는 주술사(기원후 1200-1470)

## 연재 I

+

문화속 수의학(6)  
잉카의 큰 고양이, 펠리노

는 궁중에 두고 살아있는 왕과 다름없는 보살핌을 받았다고 한다. 동물의 미라는 사람의 미라에 함께 수장되었다. 일용품은 물론이고 귀중품과 함께 생전에 기르던 가축을 함께 매장하기도 했다. 기사가 죽으면 함께 말을 순장하는 독일 중세 시대 풍습과도 유사하다고 하겠다. 죽은 이의 곁에 동물을 길동무로 동반하는 것은 기원전 만년 전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강아지의 유골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오래된 것이기는 하다. 안데스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데 있어 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그림4).

이런 이유로 개에게는 별도의 무덤이 마련되고 먹이와 외투를 함께 묻어주기도 했다. 죽음은 얼마 전까지 내 곁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을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 보내는 슬픈 과정이다. 이 삶의 과정을 사람들은 나름의 의식을 통해 기념한다. 따라서 장례 행위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대 안데스인들이 죽은 이를 신들이 그려진 화려한 직물로 정성스레 싸서 운구하는 모습은 우리의 상여 행렬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찬카이(기원후 1200~1470) 시대 대표적인 유물인 쿠치밀코(Cuchimilco)는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다. 선과 악, 해와 달 등 세상의 두 가지 이치를 나타내는 이 신은 여성과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한 쌍으로 모셔졌다. 사람들은 이들이 악귀를 물리친다고 믿었다. 또한 치료행위를 묘사한 찬카이 유물에서는 치료하는 자가 주술사로 표현되어 있다(그림5). 그러나 이것이 중세 시기 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의학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고대 안데스인들은 이미 다양한 약초를 이용한 전통치료법을 전수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상당한 수준의 외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안데스 지역은 사람의 머리뼈를 변형시키는 풍습이 잉카시대까지 남아있었다. 머리의 앞뒤에 고정판을 대어 앞뒤를 편평하게 하거나 머리 주변을 묶어 위쪽으로 길게 늘이기도 했다. 발견된 유골을 살펴보면 머리뼈에 구멍을 내는 외과 수술의 흔적이 발견된다. 주로 쓰는 무기가 곤봉이었기 때문에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이 잦아 이 부위에 대한 치료 행위로서 두개골 천공술이 이용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발달된 의학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 있었다. 바로 16세기 스페인 군대가 몰고 온 천연두라는 미지의 전염병이었다. 강력한 왕권으로 이 지역을 통일했던 현재 페루 지역을 통일했던 잉카는 이제는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이 바이러스로 인해 천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어찌면 아주 사소한 것이다.

얼마 전 미주리 대학에서 고양이 천식 연구팀에 있는 친구에게 한 의사가 고양이의 천식이 연구 주제가 되냐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농담 삼아 한마디 던져주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도 채 전에는 그 고양이의 일족을 달래기 위해 어찌면 단숨에 잘려나갔을지 모를 그 머리는 조심할 지어다.”